

(韓國語)

5 월 5 일 현지사 메시지(발취)

현민 여러분께

어제(5월 4일),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과 동시에 시마네현과 같이 감염 상황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행동 제한 완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정부 방침에 따라, 시마네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 1. 현민 여러분께 당부

우선, 「철저한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입니다.

- ① ‘3 밀(密)’ 을 철저히 피해 주십시오.
- ② ‘손 씻기’, ‘기침 에티켓’ 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 ③ 적절하게 사람과의 거리를 두십시오.

다음으로, 「외출 자숙」입니다.

- ① 불요불급한 귀성이나 여행 등, 도도부현을 걸쳐 이동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 ② 실제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변화가의 접객을 동반하는 음식점, 노래방, 라이브 하우스, 실내 운동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령 등을 불문하고 외출을 자숙해 주십시오.
- ③ ‘3 밀(密)’ 이 있는 장소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외출을 자숙해주십시오.

- ④ 이외의 자숙을 요구하지 않는 외출에 대해서는, ‘3 밀(密)’을 철저히 피하는 것과 동시에, 손 씻기나 사람과의 거리 확보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계속 지켜 주십시오.

## 2. 현립 학교의 대응

현립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 상황이 아직 수습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에 학생들을 감염에서 지키기 위해 임시 휴업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임시 휴업 연장의 대응으로, 건강 관찰, 생활지도, 학습 과제 확인·지시 등을 위한 ‘분산 등교일’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마쓰에시, 이즈모시 이외의 학교는 5월 7일, 8일
- 이즈모시의 학교는 5월 12일, 13일

동시에 지역 감염 상황에 따라, 감염 예방을 최대한 고려하여 마쓰에시를 제외한 모든 현립 학교에서, 교과 지도를 위한 ‘분산 등교’를 5월 18일부터 계획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기간,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과 감염에 우려가 있는 아동·학생은, 등교할 필요 없으며, 결석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더하여, 현재 24번째 마쓰에시의 감염 사례에 대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므로 마쓰에시의 현립 학교는 현시점에서 ‘분산 등교’를 시행합니다.

또한, 모든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소·중학교, 고등학교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원칙, 현립 학교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 대책이나 의료 확보, 현내 기업의 사업 유지에 전력으로 대처하여 현민 여러분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0 년 5 월 5 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